

■ KIA 타이거즈 김조호 신임 단장

“힘있고 통쾌한 야구 펼칠 터”

“저도 열렬한 원조 타이거즈 팬입니다. 옛 영광 재현을 위해 힘 내는 호랑이 군단으로 확 바뀌겠습니다.”

17일 광주에 내려와 선수단과 첫 상견례를 가진 김조호(49) KIA타이거즈 신임 단장은 “지난 97년 타이거즈가 9번째 우승을 거둘 때 광주에 울려 퍼졌던 승리의 함성을 잊을 수가 없다. 내년엔 그 함성을 다시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 2의 야구 명가 재건을 약속했다.

“야구명가 반드시 재건”

김 단장은 “타이거즈의 전성기였던 90년대에 안타 하나에도 환호하며 열광하고 즐거워했던 팬들의 열정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며 “나 자신도 그 시절 팬의 한 사람이고, 그 때 그 열기를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고 말했다.

무안 북중학교를 거쳐 인창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김 단장은 또박또박 쓰는 표준어에 깔끔한 첫 인상이 토종 서울 출신으로 보이지만, 사실 뱃속까지 전라도 토박이다. 대화 도중 간간히 전라도 사투리도 묻어나왔다.

“무안에서 태어나 15년을 살았어요. 지금도 고향에 가면 친척들이 모두 있습니다. 공부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긴 했지만, 당시 객지에서 타이거즈를 응원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김 단장은 가장 열렬히 응원했던 프로 야구단의 단장으로, 고향에 다시 돌아와 감회도 새롭다고 했다.



무안 출신...원조 타이거즈팬

우연의 일치이긴 하겠지만, 같이 부임한 이영철 신임 부단장(45)도 함평중학교를 졸업한 호남인이다.

“부단장도 고향이 함평 이더군요. 물론 호남이니, 영남이니 하는 구시대적인 지역색은 없어야 하지만, 그래도 고향 팀에 오니 마음만은 편합니다.”

고향에서 프로구단을 이끌게 된 만큼 김 단장의 의지도 확고하다. 내년 시즌은 팀 컬러를 확 바꿔 한국시리즈 우승을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다.

김 단장은 “타이거즈하면 타 팀을 압도하는 ‘파워’, ‘통쾌’, ‘짜릿’의 세 단어가 아니겠느냐”며 “내년부터 타이거즈 경기를 얘기할 땐 ‘통쾌하고 재미있었다. 역시 타이거즈다’ 라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며 의욕을 불태웠다.

“구조조정은 최소화”

김 단장은 최근 KIA팬들의 큰 관심사인 감독 유임 또는 선임 문제에 대해선 “여러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데, 서정환 현 감독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새 감독을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반”이라며 “모든 의견을 종합해 판단한 뒤 빠른 시일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코치진 및 선수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선 “인원이 많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면서 “능력을 꼼꼼히 따져 최소한의 폭에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결국엔 전라도 사투리로 KIA팬들의 전폭적인 구단 사랑도 호소했다. “새로 온 호남 토종 두 눈이 잘해 불량해 믿고 도와주쇼. 저도 전라도 사투리 잘 쓰지라~잉.”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7일 오후 서울 장충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아디다스 국가대표 테니스 클리닉에서 세계랭킹 44위의 이형택 선수가 주니어 선수들에게 백핸드 스트로크를 지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택 “올림픽에 올인”

해가 더할수록 농익은 플레이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이형택(세계랭킹 44위·삼성증권)이 내년 목표로 베이징올림픽 무대를 자력으로 밟겠다는 뜻을 일찌감치 밝혔다.

이형택은 16일 중국 장충 코트에서 열린 아디다스 테니스 클리닉 행사에 참석, “올림픽이 매년 열리는 대회인 만큼 남다른다. 내년 올림픽 단식에 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올림픽 남녀 단식은 각각 64강전으로 치러진다. 남녀 세계 랭킹 48위에 드는 선수는 자동으로 참가하고 대륙별 와일드 카드 등으로 16명이 추가된다. 이형택이 현 랭킹을 내린 7~8월까지 지켜간다면 무난히 베이징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클리블랜드 3연승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전통의 명가’ 보스턴 레드삭스를 물리치고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를 눈앞에 뒀다.

클리블랜드는 17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제이콥스필드에서 벌어진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7전 4선승제) 4차전에서 안정된 투수진과 응징력 있는 타선을 앞세워 보스턴을 7-3으로 꺾었다.

클리블랜드는 1차전 패배 후 3연승을 내달려 1승만 더 거두면 1997년 이후 10년만에 월드시리즈에 나가게 된 반면 보스턴은 베팅 끝에 내물렸다.

승엽 vs 우즈 ‘거포 대결’

오늘 일 센트럴리그 챔피언1차전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주니어 드래곤스의 일본프로야구 센트럴리그 챔피언결정전(5전3선승제)을 앞두고 양팀 4번 타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고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호치기가 17일 전했다.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은 16일 도쿄돔에서 열린 자체 연습경기에서 5회 1사 주자 없는 가운데 노마구치 다카히코의 141km 짜리 바깥쪽 직구를 잡아당겨 좌측 펜스를 훌쩍 넘기는 솔로 홈런을 쳐냈다.

이승엽은 이날 일본 취재진에게 농담을 건네는 등 여유를 보이며 “공이 눈에 들어온다. 풀스윙도 할 수 있게 됐다. 좋은 기분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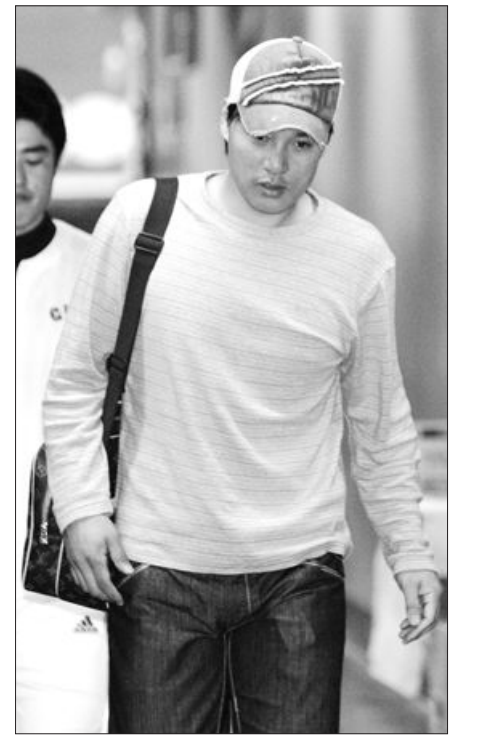
홈런 장면을 지켜본 하라 감독도 “이승엽은 우리 4번 타자니까...”라며 만족감을 표시

했다. 하지만 우즈는 이런 이승엽의 홈런을 폼하했다. 그는 “도쿄돔은 (외야가) 좁으니까 힘을 절반만 써도 홈런을 칠 수 있다”며 “오가사와라 미치히로나 다카하시 요시노부, 이승엽이 좌측 방향으로 홈런을 칠 수 있는 건 이 때문이다. 나는 어느 쪽으로도 쳐낼 수 있다”고 말했다.

우즈는 올 시즌 요미우리와의 경기에서 85타수 29안타(타율 0.341) 25타점으로 유독 성적이 좋았고 홈런 35개 중 7개를 도쿄돔 요미우리전에서 쳐냈다. 두 선수의 기 싸움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18일 오후 6시 센트럴리그 챔피언 1차전에서 판가름난다.

한편 이승엽은 17일 오후 1시부터 도쿄돔에서 특별 타격훈련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훈련 전 등 근육 통증을 호소, 곧바로 도쿄 시내 병원에 가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18일 경기 출전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이승엽이 17일 오후 도쿄 돔에서 팀 훈련이 끝난 후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승엽은 이날 등 근육통으로 훈련에는 불참했다. /연합뉴스

양궁 대표 한달내 구성 올림픽 체제로



선발방식 대폭 수정

내년 베이징올림픽에서 확실한 금메달 기대 종목인 양궁이 대표 선발 방식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

대한양궁협회는 17일 베이징올림픽 대표 선발 기간을 대폭 줄여 1~3차 선발전을 22일부터 한 달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27일까지 예선 전호 국제양궁장에서 남녀 공사 250여명을 대상으로 1차 선발전을 치러 남녀 32명씩 64명을 골라낸다.

끝이어서 2차 선발전에서 남녀 32명을 추리고, 내달 22일까지 3차 선발전에서 남녀 대표 16명을 뽑는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을 앞두고 2003년 10월부터 다음해 4월20일까지 대표를 뽑았던 ‘6개월 대장정’을 포기하고 한 달 안에 대표를 선발한 뒤 일찌감치 올림픽 준비 체제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양궁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도입된 토너먼트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리그와 토너먼트 등 다양한 테스트가 포함된 장기 선발레이스를 거쳐 김경욱(1996년), 윤미진(2000년), 박성현(2004년)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탄생시켰다.

- 18일(목)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13:50·MBC)
▲2010 남아공월드컵 남미예선(브라질: 에콰도르)(14:00·KBS2)
▲헝가리야 전국대학축구(14:00·KB-SNSPORTS)
▲일본프로야구 플레이오프(요미우리: 주니치)(17:50·SBS스포츠)
▲프로농구 개막전(울산: 대구)(19:00·KBS2)
19일(금)
▲PGA 프라이스일렉트로닉스오픈 1R(05:00·SBS스포츠·SBS골프)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Promise' (작은 만남 큰 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 Gwangju.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companies like 'Haram Makseokan', 'Wudeung Sanhoeok', 'Haebn Maeul', etc.